

치과위생사의 건강관리 및 의료 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연구

윤미숙[†] · 이경희¹
 동우대학 치위생과
¹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Dental Hygienists' Health Management and Their Use of Medical Care Services

Mi-Sook Yoon[†] and Kyung-Hee Lee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u College, Sokcho City, Kangwon-Do 217-711,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City 570-75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dental hygienists health management and to what extent they used medical care services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t's ultimately attempted to improve the health care of dental hygienists and promote their health. After relevant literature and data were reviewed, a survey was conducted for five months from June through October, 2003.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60 dental hygienists who worked at dental hospital and clinics across the n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oncerning job-related health education experience, 83.1 percent, the greatest rate, had no experience to receive education, and the type of service made a significance difference to that($p<0.05$). (2) As to in-house medical examination, 98.6 percent felt the need for medical examination, and 56.3 percent had ever their bodies examined. Their health examination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p<0.01$), marital status($p<0.01$), type of service ($p<0.01$), career($p<0.01$) and yearly income($p<0.01$). (3) Concerning how much they used hospitals after working as dental hygienists, 85.6 percent, the biggest group, had no experience to be hospitalized, and tha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p<0.05$), type of service($p<0.05$), career($p<0.01$) and yearly income($p<0.05$). 51.9 percent had no experience to receive treatment as outpatients, and their career($p<0.01$)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 (4) As for how to cope with casual diseases, 34.4 percent, the largest group, visited pharmacies, and 32.5 percent, the next largest group, saw the doctors. In regard to herb restorative, 68.1 percent had no experience to take herb restorative, and that experience varied significantly with age($p<0.01$), career($p<0.05$) and annual income($p<0.01$).

Key words Health management, Health impairment

서 론

인간이 개인적으로 건강하며, 건강을 장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이익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는 그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각 개인이 충분한 건강을 보존할 수 있도록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구성원의 건강을 진단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도록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더욱 증진시키도록 하여 장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관리란 그러한 기구로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회사

나 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질병이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예방조치로서 종업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산업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애는 우선 단순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한 근골격계의 질환이 대표적이며, 수은 등의 치과재료로 인한 위해와 감염에 대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 또한 타 직업군 보다 높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근골격계의 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러한 건강 장애는 직업병과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업병이란 재해에 의하지 않고 불량한 작업환경이나 조건에서 장기간 작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2,4)}. 최근에는 직업병의 개념을 확대하여 작업조건이나 작업자세에 의한 질병,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한 질병을 포함하기도 한다. 직업병은 산업재해와는 달리 얼른 눈에 띄지 않고 만성적으로 치츰 치츰 생체내의

[†]Corresponding author
 Tel: 033-639-0673
 Fax: 033-639-0518
 E-mail: yoonms@duc.ac.kr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아울러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5,6)}. 현재 이러한 업무관련성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저하, 품질저하 등으로 경영손실은 물론 직접 의료비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⁷⁾. 따라서 직업상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⁸⁾.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이용 행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증진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별로는 25세 이하가 5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6~30세, 31~35세, 36~40세, 4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결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persons)	(%)
Age	25 years old and less	85	53.1
	26~30 years old	51	31.9
	31~35 years old	13	8.1
	36~40 years old	7	4.4
	more than 40 years old	4	2.5
Marital status	unmarried	127	79.4
	married	33	20.6
Type of service	a dental university hospital	26	16.3
	a dental hospital	62	38.8
	a dental clinic	55	34.4
	a public health center	6	3.8
	the others	11	6.9
Service area	Seoul	92	57.5
	Gyeonggi-do	14	8.8
	Kangwon do	22	13.8
	Chungcheong-do	7	4.4
	Jeonla-do	16	10.0
Career	1 year and less	41	25.6
	1~3 years	58	36.3
	4~6 years	33	20.6
	7~9 years	11	6.9
	more than 10 years	17	10.6
Yearly income	fifteen million won and less	67	41.9
	fifteen-twenty million won	53	33.1
	twenty-twenty five million won	18	11.3
	twenty five-thirty million won	13	8.1
	more than thirty million won	9	5.6
Working hours	8 hours	72	45.0
	9 hours	48	30.0
	10 hours	29	18.1
	more than 11 hours	11	6.9
Total		160	100.0

혼상태별로는 미혼이 79.4%로, 기혼 20.6%보다 많았다.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 34.4%, 치과대학병원 16.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3.8%, 전라도 10.0%, 경기도 8.8%, 기타 5.6%, 충청도 4.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는 1~3년 미만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 25.6%, 4~6년 20.6%, 10년 이상 10.6%, 7~9년 6.9% 순으로 차지하였다.

연간수입별로는 1500만원 미만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0~2000만원 미만 33.1%, 2000~2500만원 미만 11.3%, 2500~3000만원 미만 8.1%, 3000만원 이상 5.6%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시간별로는 8시간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시간 30.0%, 10시간 18.1%, 11시간 이상 6.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의 직업병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Cronbach α 가 0.7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직업병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reliability of occupational-disease measuring tools

Division	The number of sentence	Alpha
Occupational-disease	14	0.74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직업병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test(검증)와 ANOVA(변량분석), χ^2 (Chi-square) 검증, 그리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직업 관련 건강교육 경험

치과위생사들의 직업 관련 건강교육의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교육의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83.1%로,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16.9%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1세 이상이 직업에 관련된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직업에 관련된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으나 결혼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형태별로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직업에 관련된 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었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09, p<.05$).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치과위생사가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경력별로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과위생사가 교육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수입별로는 연간수입이 많을수록 직업에 관련된 건강교육을 받은 적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시간별로는 8시간 근무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건강 교육의 경험이 가

Table 3. Experience of taking job-related health education

	Division	Yes	No	Total	χ^2 (df)	p
Age	25 years old and less	15 (17.6)	70 (82.4)	85 (53.1)	0.67 (2)	0.717
	26~30 years old	7 (13.7)	44 (86.3)	51 (31.9)		
	more than 31 years old	5 (20.8)	19 (79.2)	24 (15.0)		
Marital status	unmarried	18 (14.2)	109 (85.8)	127 (79.4)	3.20 (1)	0.073
	married	9 (27.3)	24 (72.7)	33 (20.6)		
Type of service	Dental hospital	9 (14.5)	53 (85.5)	62 (38.8)	8.09* (2)	0.017
	Dental clinic	5 (9.1)	50 (90.9)	55 (34.4)		
	the others	13 (30.2)	30 (69.8)	43 (26.9)		
Service area	Seoul	17 (18.5)	75 (81.5)	92 (57.5)	0.40 (1)	0.529
	besides Seoul	10 (14.7)	58 (85.3)	68 (42.5)		
	the others	7 (17.1)	34 (82.9)	41 (25.6)		
Career	1 year and less	9 (15.5)	49 (84.5)	58 (36.3)	0.136 (2)	0.934
	1~3 years	11 (18.0)	50 (82.0)	61 (38.1)		
	more than 4 years	8 (11.9)	59 (88.1)	67 (41.9)		
Yearly income	fifteen - twenty million won	8 (15.1)	45 (84.9)	53 (33.1)	4.50 (2)	0.105
	more than twenty million won	11 (27.5)	29 (72.5)	40 (25.0)		
	8 hours	15 (20.8)	57 (79.2)	72 (45.0)	2.24 (2)	0.326
	9 hours	5 (10.4)	43 (89.6)	48 (30.0)		
	more than 10 hours	7 (17.5)	33 (82.5)	40 (25.0)		
	Total	27 (16.9)	133 (83.1)	160 (100.0)		

*p<.05

장 많았다.

2. 직장 내 건강 검진

치과위생사들의 직장 내 건강검진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건강검진의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56.3%로,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 43.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5.39$, $p<.001$).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많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12$, $p<.001$).

근무형태별로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가장 적었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7.64$, $p<.001$).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보다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6$, $p<.01$).

근무경력별로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4.34$, $p<.001$).

연간수입별로는 연간수입이 많을수록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많았으며, 연간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50.70$, $p<.001$).

근무시간별로는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직장 내 건강 검진의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3.50$, $p<.01$).

Table 4. Presence or absence of in-house medical examination

Division		No	One of year	One of two or three year	Total	χ^2 (df)	p
Age	25 years old and less	49 (57.6)	35 (41.2)	1 (1.2)	85 (53.1)	35.39*** (4)	0.000
	26~30 years old	17 (33.3)	33 (64.7)	1 (2.0)	51 (31.9)		
	more than 31 years old	4 (16.7)	14 (58.3)	6 (25.0)	24 (15.0)		
Marital status	unmarried	61 (48.0)	64 (50.4)	2 (1.6)	127 (79.4)	17.12*** (2)	0.000
	married	9 (27.3)	18 (54.5)	6 (18.2)	33 (20.6)		
Type of service	Dental hospital	24 (38.7)	38 (61.3)	-	62 (38.8)	47.64*** (4)	0.000
	Dental clinic	41 (74.5)	12 (21.8)	2 (3.6)	55 (34.4)		
	the others	5 (11.6)	32 (74.4)	6 (14.0)	43 (26.9)		
Service area	Seoul	36 (39.1)	55 (59.8)	1 (1.1)	92 (57.5)	10.76** (2)	0.005
	besides Seoul	34 (50.0)	27 (39.7)	7 (10.3)	68 (42.5)		
Career	1 year and less	34 (82.9)	6 (14.6)	1 (2.4)	41 (25.6)	44.34*** (4)	0.000
	1~3 years	25 (43.1)	32 (55.2)	1 (1.7)	58 (36.3)		
	more than 4 years	11 (18.0)	44 (72.1)	6 (9.8)	61 (38.1)		
Yearly income	fifteen-twenty million won	49 (73.1)	18 (26.9)	-	67 (41.9)	50.70*** (4)	0.000
	more than twenty million won	17 (32.1)	34 (64.2)	2 (3.8)	53 (33.1)		
Working hours	8 hours	4 (10.0)	30 (75.0)	6 (15.0)	40 (25.0)	13.50** (4)	0.009
	9 hours	24 (33.3)	40 (55.6)	8 (11.1)	72 (45.0)		
	10 hours	25 (52.1)	23 (47.9)	-	48 (30.0)		
	more than 11 hours	21 (52.5)	19 (47.5)	-	40 (25.0)		
Total		70 (43.8)	82 (51.3)	8 (5.0)	160 (100.0)		

p<.01, *p<.001

3. 건강 검진에 대한 인식 및 의료이용 실태

치과위생사의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치과위생사가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치과위생사는 1.4%로 매우 적었다. 치과위생사들의 1개월 이내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55.0%로,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치과위생사 45.0%보다 많았다.

4. 치과위생사 재직 후 병원 입원 경험

치과위생사들의 재직 후 병원 입원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입원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입원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14.4%

Table 5. Perception of health examination and use of medical care services

Divis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Necessity of health examination	Yes	158	98.6
	No	2	1.4
Experience of using medical institutes within a month	Yes	72	45.0
	No	88	55.0
Total		160	100.0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병원에 입원 경험이 많았으며,

Table 6. Experience of being hospitalized as a dental hygienist

	Division	Yes	No	Total	χ^2 (df)	p
Age	25 years old and less	6 (7.1)	79 (92.9)	85 (53.1)	9.10* (2)	0.011
	26~30 years old	10 (19.6)	41 (80.4)	51 (31.9)		
	more than 31 years old	7 (29.2)	17 (70.8)	24 (15.0)		
Marital status	unmarried	15 (11.8)	112 (88.2)	127 (79.4)	3.29 (1)	0.070
	married	8 (24.2)	25 (75.8)	33 (20.6)		
Type of service	Dental hospital	6 (9.7)	56 (90.3)	62 (38.8)	6.04* (2)	0.049
	Dental clinic	6 (10.9)	49 (89.1)	55 (34.4)		
	the others	11 (25.6)	32 (74.4)	43 (26.9)		
Service area	Seoul	12 (13.0)	80 (87.0)	92 (57.5)	0.31 (1)	0.577
	besides Seoul	11 (16.2)	57 (83.8)	68 (42.5)		
Career	1 year and less	-	41 (100.0)	41 (25.6)	14.10** (2)	0.001
	1~3 years	7 (12.1)	51 (87.9)	58 (36.3)		
	more than 4 years	16 (26.2)	45 (73.8)	61 (38.1)		
Yearly income	fifteen-twenty million won	4 (6.0)	63 (94.0)	67 (41.9)	6.86* (2)	0.032
	fifteen-twenty million won	10 (18.9)	43 (81.1)	53 (33.1)		
	more than twenty million won	9 (22.5)	31 (77.5)	40 (25.0)		
Working hours	8 hours	12 (16.7)	60 (83.3)	72 (45.0)	0.93 (2)	0.628
	9 hours	5 (10.4)	43 (89.6)	48 (30.0)		
	more than 10 hours	6 (15.0)	34 (85.0)	40 (25.0)		
	Total	23 (14.4)	137 (85.6)	160 (100.0)		

*p<.05, **p<.01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chi^2=9.10$, $p<.05$), 결혼상태별로는 기혼 여성이 입원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모두 입원 경험이 적었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04$, $p<.05$).

근무지역별로는 서울 외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입원 경험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근무경력별로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입원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10$, $p<.01$).

연간수입별로는 연간수입이 많을수록 입원한 경험이 많았으며, 연간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chi^2=6.86$, $p<.05$), 근무시간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치과위생사 재직 후 외래 진단 경험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위생사로 재직할 이래 외래 진단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치과위생사로 재직할 이래 외래 진단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51.9%로, 외래 진단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48.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5세 이하와 31세 이상이 진단 경험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이 진단 경험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외래 진단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외래 진단 경험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근무경력별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외래 진단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

Table 7. Experience of receiving treatment at OPD as a dental hygienist

Division		Yes	No	Total	χ^2 (df)	p
Age	25 years old and less	43 (50.6)	42 (49.4)	85 (53.1)	0.75 (2)	0.688
	26~30 years old	22 (43.1)	29 (56.9)	51 (31.9)		
	more than 31 years old	12 (50.0)	12 (50.0)	24 (15.0)		
Marital status	unmarried	63 (49.6)	64 (50.4)	127 (79.4)	0.54 (1)	0.462
	married	14 (42.4)	19 (57.6)	33 (20.6)		
Type of service	Dental hospital	26 (41.9)	36 (58.1)	62 (38.8)	2.70 (2)	0.260
	Dental clinic	26 (47.3)	29 (52.7)	55 (34.4)		
	the others	25 (58.1)	18 (41.9)	43 (26.9)		
Service area	Seoul	46 (50.0)	46 (50.0)	92 (57.5)	0.31 (1)	0.581
	besides Seoul	31 (45.6)	37 (54.4)	68 (42.5)		
Career	1 year and less	13 (31.7)	28 (68.3)	41 (25.6)	6.04* (2)	0.049
	1~3 years	32 (55.2)	26 (44.8)	58 (36.3)		
	more than 4 years	32 (52.5)	29 (47.5)	61 (38.1)		
Yearly income	fifteen-twenty million won	30 (44.8)	37 (55.2)	67 (41.9)	1.88 (2)	0.390
	fifteen-twenty million won	24 (45.3)	29 (54.7)	53 (33.1)		
	more than twenty million won	23 (57.5)	17 (42.5)	40 (25.0)		
Working hours	8 hours	37 (51.4)	35 (48.6)	72 (45.0)	0.57 (2)	0.754
	9 hours	22 (45.8)	26 (54.2)	48 (30.0)		
	more than 10 hours	18 (45.0)	22 (55.0)	40 (25.0)		
Total		77 (48.1)	83 (51.9)	160 (100.0)		

*p<.05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04$, $p<.05$).

연간수입별로는 연간수입이 많을수록 치과위생사로 재직 한 이래 외래 진단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근무시간별로는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외래 진단 경험이 많았으나 근무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6. 가벼운 질병에 대처 방법

치과위생사들의 가벼운 질병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약국을 찾는 치과위생사가 3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원과 병원 방문이 32.5%, 참는 경우가 20.6%, 민간요법 및 자가치료가 11.3%,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How to cope with mild diseases

Divis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Enduring	33	20.6
Self-treatment	18	11.3
Pharmacy	55	34.4
Oriental clinic	2	1.3
Clinic and hospital	52	32.5
Total	160	100.0

7. 보약 복용 경험

치과위생사들의 보약 복용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복용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68.1%로, 복용 경험

Table 9. Experience of taking herb restorative

	Division	Yes	No	Total	χ^2 (df)	p
Age	25 years old and less	27 (31.8)	58 (68.2)	85 (53.1)	11.27** (2)	0.004
	26~30 years old	10 (19.6)	41 (80.4)	51 (31.9)		
	more than 31 years old	14 (58.3)	10 (41.7)	24 (15.0)		
Marital status	unmarried	38 (29.9)	89 (70.1)	127 (79.4)	1.08 (1)	0.298
	married	13 (39.4)	20 (60.6)	33 (20.6)		
Type of service	Dental hospital	20 (32.3)	42 (67.7)	62 (38.8)	3.70 (2)	0.157
	Dental clinic	13 (23.6)	42 (76.4)	55 (34.4)		
	the others	18 (41.9)	25 (58.1)	43 (26.9)		
Service area	Seoul	25 (27.2)	67 (72.8)	92 (57.5)	2.20 (1)	0.138
	besides Seoul	26 (38.2)	42 (61.8)	68 (42.5)		
Career	1 year and less	6 (14.6)	35 (85.4)	41 (25.6)	7.55* (2)	0.023
	1~3 years	22 (37.9)	36 (62.1)	58 (36.3)		
	more than 4 years	23 (37.7)	38 (62.3)	61 (38.1)		
Yearly income	fifteen-twenty million won	15 (22.4)	52 (77.6)	67 (41.9)	10.93** (2)	0.004
	fifteen-twenty million won	15 (28.3)	38 (71.7)	53 (33.1)		
	more than twenty million won	21 (52.5)	19 (47.5)	40 (25.0)		
Working hours	8 hours	26 (36.1)	46 (63.9)	72 (45.0)	1.65 (2)	0.439
	9 hours	12 (25.0)	36 (75.0)	48 (30.0)		
	more than 10 hours	13 (32.5)	27 (67.5)	40 (25.0)		
Total		51 (31.9)	109 (68.1)	160 (100.0)		

*p<.05, **p<.01

이 있는 치과위생사 31.9%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6~30세가 다른 연령대의 치과위생사보다 복용 경험이 적었고, 31세 이상이 30세 이하보다 보약을 먹은 경험이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1.27$, p<.01).

결혼상태별로는 미혼 여성이 보약을 먹은 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근무형태별로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험이 적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근무지역별로는 서울 외 지역의 치과위생사가 경험이 많았으나 근무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경력별로는 1년 이상 경력의 치과위생사가 1년 미만 경력의 치과위생사보다 보약을 먹은 경험이 많았으며,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55$, p<.05), 연간수입별로는 연간수입이 많을수록 보약을 먹은 경험이 많았으며, 연간

수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93$, p<.01).

근무시간별로는 8시간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험이 많았고, 9시간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험이 적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병원은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높고, 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환경의 특수성과 관련된 질병발생이 다른 산업보다 높다는 결과가 있다⁹⁾. 또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작업장에는 잠재적 유해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보호 장비 및 배기 시설이 요망되며, 작업 시 치과위생사 스스로의 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¹⁰⁾.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과 관련된 건강 교육의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16.9%에 불과했고, 직장 내 건강 검진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56.3%만이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김¹¹⁾이 조사한 66.5% 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1개월 이내의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45.0%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⁸⁾의 결과 10.4%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 결과는 치과장비의 개선과 진료 환경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직업상 장애는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상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환경의 개선과 올바른 시술위치와 자세의 교육을 통하여 질환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¹⁾.

치과위생사로 재직 후의 입원 및 외래 진단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입원의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14.4%로 조사되었으며, 외래 진단의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48.1%로 조사되어, 이는 각각 이⁸⁾의 결과 8.9%와 41.14%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및 치료는 일반적인 증상과 환자가 경험하는 주관적 증상, 그리고 의사가 객관화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임상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의료 이용 수준은 윤¹²⁾ 등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 9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인 예방 및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의 대상자 중 약 50% 이상이 25세 미만의 치과위생사로 편재되어 있어 전체 치과위생사의 건강 장애 및 관리 수준을 대표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로 치과위생사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 약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치과 병, 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160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의료 이용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직업과 관련된 건강 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육의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83.1%로 가장 많았고, 근무 형태에 따라($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직장 내 건강 검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건강 검진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56.3%가 건강검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에 따라($p<0.01$), 결혼상

태에 따라($p<0.01$), 근무형태에 따라($p<0.01$), 근무경력에 따라($p<0.01$), 연간수입에 따라($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 치과위생사로의 재직 후 병원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병원 입원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치과위생사가 85.6%로 가장 많았고, 연령에 따라($p<0.05$), 근무형태에 따라($p<0.05$), 근무경력에 따라($p<0.01$), 연간수입에 따라($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래 진단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치과위생사가 51.9%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에 따라($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가벼운 질병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약국을 찾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원 및 병원 방문이 32.5%로 나타났으며, 보약 복용 경험에 대해서는 복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8.1%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p<0.01$), 근무경력에 따라($p<0.05$), 연간수입에 따라($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고문헌

1. The neck, The shoulder, The waist, "Tingling, tingling!".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38(3): 255-257, 2000.
2. Yum YT: Discussion on the Health Care System for Industrial Workers in Korea In relation to Revis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 medical science, 2(2): 117-122, 1990.
3. Kang SG: Common occupational disease in primary care,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11): 1369-1377, 1999.
4. Kim J: Occupational disease,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 analytical laboratory of legislative data, 34: 54-55, 1991.
5. The department of Labor: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Harmful environment in place of business. The national labor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11, 1982.
6. The department of Labor: A study on the measuring method of hazardous article. The national labor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12, 1982.
7. Kim JH: A study about systematic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musculoskeletal disorders. A treatise of master's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2002.
8. Lee HK: Analysis on the influence factors to perception of occupational disease on dental technician. A treatise of master's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3.
9. BLS: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and Health Statistics. Supplementary data system. Washington, DC, NTIS Publication No. PB80-160507, 1983.
10. Anonymous: Lung disease in dental laboratory technician(editorial). The Lancet, 1, 1985.
11. Kim EM: A study of the status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in small-scale enterprises. A treatise of master's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2001.
12. Yoon MS, Song KS and Ko MH: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into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Health Impairment Factors by Occupational Diseases.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3(2): 59-66, 2003.

(Received June 2, 2004; Accepted June 12, 2004)

